[보도자료]

뮤지엄헤드 Museumhead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F
1F, 84-3, Gyedong-gil, Jongno-gu, Seoul
문의: museumhead.seoul@gmail.com

뮤지엄헤드, 기획전 《꽃 Flowers》 개최

뮤지엄헤드는 2021년 5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기획전 《꽃 Flowers》을 개최한다. 《꽃 Flowers》은 '꽃'과 그 바깥의 윤곽을 사유하는 시도들과 함께 오늘 회화의 면면을 살펴본다. 참여 작가들은 이름과 모양, 종이 다른 꽃들을 저마다의 은유와 방법, 감각으로 추동한다. 전시에서 꽃은 심리적이며 물리적인 한편 사회적인 발화로서 개화한다. 그것들은 흐드러지게 피고 지거나, 발갛게 솟아오르거나, 하얗게 색이 바래있다. 또 밤 불빛 사이로 움츠리고 꿈틀대거나, 가지런히 꽃꽂이 되어 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욕망을 일깨우고, 개인과 공동체의 숨겨진 사연을 서사화하며 잊혀가는 기억을 끄집어낸다. 저물지만 다시 피고 만다는 준비된 선언으로, 꽃은 스스로와 오늘의 회화를 확인시킨다.

전시는 꽃그림으로 가득하다. 암술과 수술을 함께 갖춘 자웅동체이자 양성의 꽃은 줄곧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의미를 운반했다. 인간의 거의 모든 삶의 여정에 관여하지만 늘 제한된 시간에만 존재했고, 미술의 가장 익숙한 소재임과 동시에 경시의 대상이었다. 분명한 건 이러한 꽃의 양면성이 지난한 통속성을 뚫고 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어김없이 꽃은 폈고, 미술은 여전히 꽃을 담아낸다. 꽃이 꽃으로 또 다른 모순을 돌파하려면 단순한 구경 이상의 바라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꽃의 개화는, 그려짐은 그 바라봄을 온몸으로 요청하는 몸짓이 아닌가. 어슴푸레한 상상의 세계부터 현기증 나는 현실까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꽃그림은 각 개인과 회화 매체가 스스로를 사고하는 존재론적 탐구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전시는 꽃을 통해 다양한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동시대 회화의 진행 속에서 확인해본다.

전시 정보

전시제목: 《꽃 Flowers》
참여작가: 김민희, 김수연, 안상훈, 이호인, 이혜인, 임노식
전시기간: 2021.5.6.- 6.26.
전시장소: 뮤지엄헤드(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F)
관람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기획 및 주최: 뮤지엄헤드
그래픽디자인: 윤현학

공간 소개

뮤지엄헤드(대표: 유수진)는 2020년 12월 종로구 계동길에 문을 연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미술(관)에 광적인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다양한 매체가 전시를 대체하는 현재의 시공에서 물리적 현존으로서 전시와 큐레이팅에 집중하며, 여전히 전시를 만들고, 돌파하고, 갱신한다. 오늘, 서울, 새로움의 명멸을 보다 분명한 전시로 포착, 공유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삼는다.

뮤지엄헤드는 젊음이나 현재주의를 표방한 당대성과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 당위성을 경계한다. 현재의 소개자, 혹은 역사의 중간자로 젊음과 새로움, 비주류를 중심으로 승격시키는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공론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오늘, 서울을 시급하고 문제적인 것으로 조명하고 탐구하는 작가들과 협업하며, 이들의 작업을 지원, 소개하는 전시와 출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보도자료]

참여 작가 소개

김민희
회화, 망가, 아니메가 이루는 모종의 삼각관계를 고민해왔다. 내러티브가 탈각된 이미지를 가져와 정지된 화상 혹은 영원히 반복되는 프레임으로서의 '회화'에 어떻게 반입될 수 있는가를 실험한다. 《오키나와 판타지》(2018), 《고스트 비키니》(2020)로 개인전을 두 차례 열었고, 《솔로쇼: 온》(2020) 등 몇몇 기획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김수연
식물도감, 백과사전, 춘화집 등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입체물로 구현하고, 그것을 정물화의 형식으로 다시 회화로 그려낸다. 매체의 변환과정을 통해 회화에서 대상이 되는 실체에 대해 탐구한다. 개인전으로는 일본 도쿄 SH ART PROJECT의 《WHITE SHADOWS》(2019), 갤러리2의 《SPRING PAINTINGS》(2018), 독일 베를린 안도파인아트의 《ENCYCLOPEDIA_Vol.1 Early efforts of ballooning》(2016) 등이 있다. 2010년부터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에 선정되었다.

안상훈
갤러리조선(2020, 2018, 서울), 인천아트플랫폼(2018, 인천), 크라이스미술관(2016, 오스터부르크, 독일)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문화비축기지, 수림아트센터, 경기창작센터, Plan B 프로젝트스페이스, 인천아트플랫폼, 독일 Tempelhof Museum, Gelsenkirchen Museum, Kunsthalle Muenster 등 여러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 독일 쿤스트호프 다렌슈테트, 인천아트플랫폼, 경기창작센터 등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021년에는 캔 파운데이션 명륜동작업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호인
자연과 인공 그 사이의 틈을 주제로 풍경을 다룬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및 전문사를 졸업했다. 두산 갤러리(2018, 뉴욕, 미국), 케이크 갤러리(2015, 서울, 한국), 16번지(2012, 서울, 한국),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2009, 서울, 한국)에서 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원앤제이 갤러리(2020, 서울, 한국), 삼성미술관 리움(2016, 서울, 한국), 케이크 갤러리(2014, 서울, 한국)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 제7회 두산 연강 예술상을 수상했다.

이혜인
개인의 신체가 주어진 환경적 조건을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방식으로서 그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베를린 쿤스틀러 하우스 베타니엔(2013), 금천예술공장 (2014), 두산 뉴욕 레지던시 프로그램(2015) 등에 참여하였다. 《완벽한 날들》(대구미술관, 2013), 《어느 날, 날씨를 밟으며》(갤러리 기체, 2020) 등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아티스트 파일 2015: 동행》(국립현대미술관, 도쿄국립신미술관, 2015), 《Will you be there?》(Project Fulfill Art Space, Taipei, 2018), 《밤이 낮으로 변할 때》(아트선재센터, 2019)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임노식
작가는 자연에서 관찰한 인위적인 상황과 흔적들을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한다. 2016년 개인전《안에서 본 풍경(View from the Inside)》을 시작으로 2017년《접힌 시간(Folded Time)》, 2020년《물수제비 (Pebble Skipping)》를 열었으며,《Re search》,《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Non-self standings)》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보도자료]

첨부 이미지

1. 전시 포스터

《꽃 Flowers》포스터, 디자인: 윤현학

- 보도자료 내 이미지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이미지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전경 이미지 등의 추가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별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뮤지엄헤드 Museumhead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F
운영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문의: museumhead.seoul@gmail.com